



교육과 치수(治水)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

술한 기대와 다양한 전망 속에 맞은 새 천년도 그 컷해가 거반 저물어 가고 있다. 변화된 새 시대의 삶의 양식들이 피부를 통해 감지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회 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에 의해서 명명되어진 후기 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후기 산업 사회는 전기 산업 사회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힘의 이동(Power Shift)」에서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지식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물질 생산과 그 물리적 이동이 중심을 이루던 전 시대 산업 양태에서 지식의 생산과 그 운용이 중심을 이루는 지식·정보 산업 양태로의 일대 혁명적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인구의 증가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의 움직임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대로 우리의 안방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 세계의 모든 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세계의 모든 이들은 오직 이 지구촌에서의 이웃 주민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세계인은 모두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대학 교육과 또 그 교육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새삼 따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처럼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민족도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학벌과 학연을 통한 출세 지향주의에 바탕을 둬서 교육에 대한 이 열정은 과열된 입시 경쟁이라는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모적인 방향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높은 경쟁을 통해 어렵게 들어가야 하는 국내의 세칭 일류 대학들이 세계 무대에서 전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 자료의 어디에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국내의 소위 유명 대학의 이름들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입시 중심 교육의 폐해이다. 입시 중심 교육은 필연적으로 중등 교육의 본질을 교육자에게서 피교육자에게로의 규격화된 단편적

“

치수(治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본성에 따라
 얇은 곳으로 범람하는 물을 인도하되
 항상 전체를 염두에 두어
 어느 한 곳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 혹여 원만한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의 제방은 없는가 돌아볼 일이다.

”

지식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왜곡시킨다. 그 결과 고등 교육인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피교육자에 의한 지식의 창조와 운용에 대한 준비 단계는 실종되는 것이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교육 방법으로는 학습의 자율성에 기초한 진리 탐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맹자(孟子)는 진심 장구(盡心章句)에서 교육의 다섯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역시우화지자(如時雨化之者)'를 들고 있다.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뜻이다. 좋은 교육 방법이란 교육자가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서 피교육자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예나 이제가 다를 리 없다.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대학의 교육자나 피교육자가 국내 대학의 서열에 너무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나 학연 중시의 폐습을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 검증을 중시하는 새로운 풍토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새 시대의 경쟁은 국제 규모의 무한 경쟁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 정책에서 혹여 원만한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의 제방은 없는가 돌아볼 일이다.

맹자는 자신이 하(夏)나라의 우(禹)왕보다 치수(治水)에서 한 수 위라고 주장하는 백규(白圭)라는 사람에게 치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치수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본성에 따라 얇은 곳으로 범람하는 물을 인도하되 항상 전체를 염두에 두어 어느 한 곳에도 피해가 없도록 무리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방을 쌓아 물길을 막거나 특정한 곳에만 피해가 미치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치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가졌던 <국립 대학 발전 계획(안)>을 보면서 맹자에 나오는 우왕의 치수 원리에 대한 구절을 떠올렸다. 대학을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데에서 특히 그랬다. 세계는 벽을 허물어 가고 있다. 모든 예술도 그 장르의 벽을 허물고 있고, 클래식과 대중 음악도 벽을 허물고 크로스 오버라는 형식으로 만나고 있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이데올로기의 벽도, 국경의 벽마저도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세계는 모든 벽을 허물고 광장으로 나와 최선을 다한 능력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벽의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꼭 필요하다면 벽이 있어도 좋다. 그러나 그 벽은 원하는 자가 자의로 출입할 수 있는, 혹은 능력을 갖춘 자가 자의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문을 가지고 있는 벽이어야 한다.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갇히는 벽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책도 제도도 새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